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96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96p(-, WoW)라고 보도됨. 지난 주 LPG dual-fuel VLGC 5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이 2척, 현대중공업이 1척, 중국의 Jiangnan SY Group이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Clarksons)

현대-대우 기업 결합 인수 시한 연장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당초의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공시함. 대우조선해양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수정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 정정 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Bids are in: Contractors submit revised offers for giant Qatargas North Field Expansion packages

글로벌 EPC업체들이 Qatargas의 North Field Expansion 프로젝트 2개 패키지 공사에 입찰 했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FID(최종투자승인) 일정은 다소 늦춰졌으나, 2021년 1분기 내로 2개 패키지 공사에 대한 최종투자승인이 결정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Counting the days: Adnoc sets bid deadline for huge offshore oilfield contract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가 Umm Shaif oilfield 등 주요 offshore 공사에 대한 입찰 일정을 정했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commercial bid는 2월 4일까지 마감이라고 보도됨. (Upstream)

세계 최초 Ammonia-ready 탱커 발주

그리스 선사 Avin International이 세계 최초의 ammonia-ready 탱커를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ABS의 기본승인을 받은 156,500DWT급 수에즈막스급 탱커로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이 건조한다고 보도됨. 2022년 인도되면 우선 벙커유를 사용하다가 이후 개조 공사를 거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일본, EEDI Phase3 선박에 올인

한국과 중국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일본은 EEDI Phase 3 선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됨. 국제해사기구(IMO)의 Phase 3 기준은 2025년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될 이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Phase 3 기준은 2018년에 비해 에너지 연비를 30%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